

# 횡단하는 물질과 여성의 몸 궤적

– 초기 성인기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

추지현<sup>SM</sup>

## | 목차 |

1. 문제 제기: 약물, 신체, 여성의 관계
2. 이론적 자원과 연구 방법
  - 1) 이론적 자원  
: 횡단-신체성과 몸 궤적
  - 2) 연구 자료 및 방법
3. 약물에의 이끌림과 몸의 경향성
  - 1) 젠더화 된 고통의 침습  
: “나도 모르게” 몰두한 재미
  - 2) 노동과 유희 사이  
: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
4. 약물의 배치
  - 1) 약물의 불확정성과 이성에 섹스
  - 2) 의료용 약물과 의료 지식
5. 약물의 이탈적 작용능력과 새로운 몸 궤적 출현
  - 1) 약물 경계의 남성중심성  
: “꼬마(로) 잡히기”
  - 2) 긴장 속의 쾌락과 몸의 이탈  
: 성적 낙인과 거부
6. 결론

## | 초록 |

본 연구는 여성의 몸을 다양한 물질, 제도, 담론이 가로지르고 변화하는 횡단-신체성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를 분석했다. 여성의 몸에 축적된 기억과 습관 등 몸 궤적이 약물을 둘러싼 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했다.

여성폭력의 피해, 반복된 성/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침습은 외로움과 무료함을 위무할 이성에 파트너십과 즉각적 자극 추구, 긴장과 각성에 익숙해지는 몸의 경향성을 만

\* 이 논문은 2025년도 서울대학교 SNU 10-10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  
연구수행을 도와주신 회복공동체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chooja2@snu.ac.kr

들었다. 이러한 몸은 유흥과 의료의 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의 배치에 따라 약물의 궤적을 상이하게 만들어냈다. 하지만 남성중심적 약물 경제와 섹슈얼리티 질서는 여성들에게 긴장을 야기했고, 이를 통해 약물로부터 이탈하려는 새로운 몸 궤적이 출현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몸 궤적과 약물의 횡단 과정에 주목할 때, 약물은 인간의 통제 대상 혹은 약리적 효과로 환원되는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을 소환하는 능동적 행위자가 된다.

**주제어:** 약물, 몸, 궤적, 횡단-신체성, 나르코-페미니즘

## 1. 문제 제기: 약물, 신체, 여성의 관계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인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대응을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25년 1월 발표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투약 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의 활성화, 대상별 맞춤 교육 및 관리 강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처벌과 교육을 통해 약물<sup>1)</sup>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 혹은 의료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약물에 정복된 신체로 조망된다. 이 맞춤형 개입 대책에서는 젠더화된 몸 역시 보이지 않는다.<sup>2)</sup> UNODC가 여성의 마약류 사용이 남성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독의 여성화(feminization of addiction)’ 상황을 문제화하고 있음에도 말이다(UNODC, 2024:58).<sup>3)</sup>

1)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2., 법률 제20878호, 2025.4.1. 일부개정)에 따른 “마약류”란 ①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마약, ②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서 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를 일컫는다. 반면 “약물”(drug)은 이와 같이 불법 약물로 정의된 “마약류”(narcotics) 이외에도 진통, 수면 효과를 가진 일반의약품이나 알코올, 니코틴 등 신경활성을 일으키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포괄한다. 이하에서는 그 용례를 따른다.

2)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대상은 수용자, 외국인 및 군인으로 구획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젠더중립적 외양의 약물 규제 정책이 가져온 효과를 설명해왔다. 1960년대 이래 금지주의 약물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온 영미권에서 “마약과의 전쟁은 여성에 대한 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약물 규제는 여성의 몸에 대한 더 넓은 감시와 통제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Gelthorpe, 2010; Castillo, 2019; Nagel & Johnson, 1994; Britton, 2011). 예컨대 크랙이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그 위험 집단으로 타겟팅된 것은 임신 부들이었고(Nagel & Johnson, 1994), 약물 사용을 어머니 노릇의 실패로 바라보는 관점은 낙태, 아동학대 등을 명분으로 여성에 대한 감시와 입건을 확대했다(Britton, 2011). 형사절차 진행이나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여성들의 몸이 약물 검사나 신체 검사의 대상으로 놓이는 상황의 확장은 생식권과 모성에 대한 생명정치적 감시로 평가되고 있다(Campbell, 2002; Campbell & Ettore, 2011; Paltrow & Flavin, 2013; Herzberg, 2009).

그래서 약물 사용 여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나르코 페미니즘(Narco-feminism)은 처벌과 의료 중심의 정책이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면화한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약물 유통이 폭증하고 형벌 중심의 강력한 금지주의 정책이 시행되어 온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여성들은 마찬가지로 상황을 앞서 경험해 온 영미권의 여성들과 함께 약물 정책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약물이 성애화 된 존재로서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 맺기나 자기 돌봄(self-care)<sup>4)</sup>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주류 페미니즘조차 약물 사용시 여성들이 느끼는 쾌락이 무엇인지 외면하는 도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여성의 비율은 2배 이상, 그 인원은 남성의 1.5배보다 훨씬 많은 7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했다(대검찰청, 2025).

4) 남성 및 이성애 중심의 현행 젠더 관계에서 약물 사용을 통한 섹슈얼리티 실천을 통해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온 쾌락 추구가 해방적이고 타자와의 관계를 긍정하는 자기 돌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Clay, 2024).

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몸에 대한 자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Dennis et al., 2023; Chang, 2023; Eleonorascotter, 2024; Chang, 2019).

약물 사용을 둘러싼 지식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려는 이른바 비판적 약물 연구(Critical Drug Studies)들은 여성 약물 사용자들의 쾌락을 간과하는 것이 여성들의 취기(intoxication)를 성적 수치와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약물 사용이 가져오는 쾌락을 간과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고 여성의 약물 사용이 문제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Walker, 2021).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약물 사용이 폭력 피해의 트라우마, 빈곤 및 양육 부담, 성적체성을 이유로 한 주변화, 의료 접근성 제약 등 젠더 불평등을 통해 야기되고 있음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개진되고 있다(Coppel & Perrin, 2024; Buer et al, 2016; Covington, 2007; Ettore, 2007). 한국의 연구들도 마찬가지인데, 2014년부터 3년간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형이 확정된 사건 대상자 554명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졸피뎀, 케타민, 프로포폴, 디아제팜 등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에 기능이 있는 약물을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다(전영실 외, 2017). 약물에 대한 첫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최면진정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오남용에 취약한 여성들의 삶을 보고하고 있고, 동시에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의 처방을 권하는 젠더화 된 몸의 규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김새롬 외, 2024). 그 밖에도 기지춘을 포함한 성매매 현장에서 그 사용을 강요당하거나 성노동을 견디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게 된 여성들의 상황(김지선 외, 2014; 이재임, 2025), 술이나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물뽕”) 등 약물 이용 성폭력 피해의 문제(김정연, 20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일찍이 리사 마허는 약물 사용 여성을 젠더와 교차하는 인종, 계급 등 사회 구조의 피해자로서만 조망하는 관점은 물론 여성의 행위성과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관점 모두 구체적인 약물 경제의 시공간에서 젠더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Maher, 1997). 영국의 페미니스트 범죄학자인 피오나 미샴 역시 여성들에게 약물 사용은 그저 젠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협상적 실천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연출이 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쾌락을 불온하게 여기는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doing drug)은 젠더를 수행하는 것(doing gender)이라 주장하기도 했다(Measham, 2002).<sup>5)</sup>

약물을 여성의 쾌락 추구하고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여성의 약물 사용이나 중독을 도덕적 방종이나 수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규범적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동시에 여성의 약물 사용을 이끈 젠더 불평등을 강조하는 접근은 약물 사용을 젠더중립적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약물을 적극적 쾌락 추구 혹은 고통으로부터의 자가치료라는 인간의 합목적적 행위 수단으로만 바라볼 경우, 약물이라는 물질이 여성의 신체라는 또 다른 물질과 만나고 서로 변화하는 과정은 간과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성과 담론적 틀을 통해 자신의 약물 사용 경험을 해석하고 대응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때 느낀 몸 감각에 따라 그 물질의 생리적 효과는 달리 나타나며 이것은 인간과 약물, 이성과 몸이 이미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Dennis, 2017; Dennis & Farrugia,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약리적이고 생리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고정된 물질로만 바라보면 약물 사용자를 도덕적 의식이나 자기

5) 이러한 미샴의 테제는 여성들의 약물 사용을 젠더 불평등에 따른 고통과 자가치리로 환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젠더 규범의 산물로, 반대로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난받는 클러버들의 실천을 여성성으로 환원함으로써 결국 여성이 행한 것은 여성성이라는 토틀로지를 생산하고 여성의 남성성 수행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비판, 즉 그 실천의 배치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Miller, 2014).

통제에 결함이 있는 주체 혹은 약물로 인한 뇌의 변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신체로 환원하는 지배적인 의학적, 신경과학적,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을 답습할 수 있다(Gomart, 2002; Moore, 2010; Moore & Fraser, 2006). 약물과 인간 신체가 만나는 역동적 과정을 중심으로 젠더의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본 연구는 인간과 약물, 주체와 객체, 이성과 몸,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항 대립을 넘어서려 할 때, 여성들의 약물 사용을 보다 정치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인간의 몸을 물질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지식, 담론, 또 다른 비/인간 신체가 서로를 횡단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스테이시 앨리모의 횡단-신체성의 관점에서 약물 사용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자원과 연구 방법

### 1) 이론적 자원: 횡단-신체성과 몸 궤적

앨리모는 사회적 관계를 체현하는 동시에 이를 이탈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인간 신체의 다중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때 몸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신체의 투과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주체와 타자의 경계 안팎을 서로 넘나드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화학물질복합과민증을 겪고 있는 인간의 몸, 독성물질로 중독된 몸은 그녀가 설명하는 횡단-신체적 공간의 대표적인 예다. 화학물질은 카펫과 소파처럼 걸보기에는 불활성적인 물건들로 보이지만 그것이 야기한 기침, 피부 발진, 이에 대응하려는 외과 수술의 주사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몸 사이를 횡단하고 있다. 또한 이 물질은 그러한 신체 반응을 인간의 예민한 심리적 성

격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환경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문명에 대한 고발로 독해하려는 지식 사이도 횡단한다. 앨리모는 이 사례를 통해 물질이 사회, 경제적 영역을 횡단하며 지식과 자아의 심리적, 정치적 실천 등을 분리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적극 인용되는 것은 물질이 불변이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항들의 특정한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출현한 것이라 설명하는 바라드의 논의, 생물학적 신체와 또 다른 물질의 분리불가능한 결합을 강조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은유다. 앨리모는 이들의 논의를 통해 인간 몸이나 비인간 물질의 속성 모두 이를 둘러싼 배치에 따라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 인간 신체의 취약성은 ‘이미’ 함께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앨리모, 2010).

인간이 언제나 그리고 이미 예측 불가능한 물질 세계의 일부라는 횡단 신체성에 대한 앨리모의 주장과 그녀가 인용하고 있는 라투르, 해러웨이, 바라드의 논의는 인간의 약물 사용이라는 사건의 출현적(emergent)이고 관계적인 존재론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을 통해 개진되고 있다. 예컨대 나르코-페미니스트인 아즈벨은 인간 경험을 만들어내는 물질의 능동적 힘을 강조하면서 COVID-19 봉쇄가 클럽이 아닌 집으로 여성들을 모이게 했고, 그때 파티를 위한 조명과 공간 연출, 타인의 신체를 활용한 약물 사용 등이 여성들에게 친밀성과 섹스에 대한 비규범적인 정체성을 수행하는 퀴어 신체성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Azbel, 2023). 딜케스-프레인은 호주 20대 백인 남성 대학생이 음악 축제에서 MDMA를 일시 소비하는 사건을 예시로 호주의 청년 하위문화나 정부의 단속 정책처럼 구체적 시공간을 초월한 구조적 맥락이 아니라, 그의 전일제 학생 신분, 경제적 자원, 지역의 교통망 등 사건의 역동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요소들을 발견한다.

인간의 몸을 물질과 관계하는 탈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약물에 취한 상태라는 사건의 출현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얽힘에 주목하는 것은 물질의 역동성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인간 행위

자들의 공시적 연결에만 주목하면 약물 사용자인 여성들의 주관적 해석과 인간 몸이 가진 역사성이라 할 과거의 경험과 몸에 축적된 습관, 기억 등의 시간성을 온전히 포착할 수 없고(Anderson & Wylie, 2009; McCormack, 2010; Massumi, 2014), 여성 주체의 몸 경험이 가진 연속성과 지속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약물을 둘러싼 비/인간 행위자들과 담론, 지식의 횡단 경로를 추적함에 있어 시간성을 적극 고려하고자 몸 궤적에 주목한다. 제인 베넷은 인간 신체를 포함한 물질의 생기를 “그들 고유 의 궤적, 성향, 경향성을 가진 준 행위자 혹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물질로서 인간 신체가 가진 생기란 인간의 의지와 의도를 때로는 흘뜨리고 차단하지만 자신만의 경향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행위자에게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과 약물이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건의 발생이란 과거에 형성된 것이 새롭게 실현되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실현 방식에는 몸에 축적된 기억, 의도, 습관 등의 경향성(tendencies)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베넷, 2020). 마수미는 이 몸의 경향성이 활성화되지 않고 멈추기도 하기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몸에 궤적(trajectores)을 남김으로써 향후 변화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Massumi, 2009). 딜케스-프레인과 더프는 마수미가 언급한 몸 궤적을 몸이 가진 경향성이 사건 속에서 물질적, 정동적으로 표현되는 경로로서 개념화 한다. 몸의 경향성을 통해서는 시간 속에서 축적된 결과로서 주체의 연속을, 몸 궤적을 통해서는 그것이 다르게 실현되는 출현의 과정과 주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Dilkcs-Frayn & Duff, 2017). 본 연구는 단일하지 않고 불확실하면서도 과거와 맞물려 출현하는 몸 궤적이 사건 속에 얽혀 있는 역사를 포착하기에 보다 용이하다고 보고 여성의 몸과 약물이 서로를 횡단하는 과정을 몸 궤적의 변화 중심으로 살펴본다.

## 2) 연구 자료 및 방법

여성들을 약물 사용으로 이끈 몸의 경향성, 그것이 약물을 둘러싼 또 다른 신체, 물질, 담론과 얽혀 여성들의 몸 궤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 보기 위해 약물 사용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생애사 면접을 진행했다. 생애사 구술은 여성의 장기적인 삶의 전개 과정은 물론 여성들이 현재 어떠한 위치와 조건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재구성하는지, 그 의미화 방식까지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희영, 2005)에서 몸에 축적된 경험과 해석, 실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했다.

첫 면접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 말해주세요”를 시작 질문으로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제한하지 않고 우선 들었다. 이후 초기 이야기를 통해 파악되지 못한 것, 예컨대 약물을 접하게 된 과정, 구체적 약물의 사용 방법과 그 시·공간, 몸의 느낌, 약물 사용 이후 삶의 변화, 단약을 위한 시도들과 주변의 반응을 물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한 생애 이력, ‘살았던 생애사’, 면접 과정에서 생산된 서사의 형태로서 ‘이야기된 생애사’<sup>6)</sup>를 정리하여 현재 과거와 미래의 자신을 위치짓는 서사 방식인 생애사적 관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에게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됐는지 해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하는 공동체를 통해 만났다. 한국 최초 약물 중독 치료 자활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는 이곳은 1997년 서울에서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31개

6) 로젠탈은 생애 데이터에 대한 연속적 분석으로서 ‘살았던 생애사’(a life as lived), 텍스트 특성과 주제 분석으로서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 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구성되는 ‘체험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로 분석 수준을 구분하고 있고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이희영(2005)의 분석 방법을 따랐다.

의료기관 중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갖고 있는 병원<sup>7)</sup>과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해당 공동체에서 오랜 기간 지원 활동을 해 온 연구자를 통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2024년 9월부터 해당 공동체의 자조 모임, 예배당, 흡연구역, 복도, 회식 등 일상에 참여했다. 면접은 약물 사용 당사자는 물론 활동가, 당사자의 어머니와 아내 등 10명과 진행됐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당사자에 한해 생애 구술을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데 성별 이외에 고려한 것은 없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령, 계층, 학력은 물론 생애 여성폭력의 피해 경험, 구치소 수감 경험 여부도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 등 초기 성인기에 마약류 사용이 시작됐다는 점,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하면서도 “강성 마약”인 필로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 출산 경험이 없다는 점은 공통됐다. 이 공동체는 신앙을 통한 회복을 도모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모두 단약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면접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회복 공동체 및 집 근처에서 이뤄졌고 회당 평균 두시간 가량, 개인별 평균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특징<sup>8)</sup>은 아래와 같다. 약물의 구체적 종류는 물론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몸 경험과 약물을 둘러싼 배치 역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특정한 약물 사용 경험을 가진 한국 여성의 일부일 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 2024.1.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현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79721&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79721&tag=&nPage=1)

8)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구 참여자가 특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 출생연도, 혼인상태, 학력 등의 기제는 생략하고 맥락 해석에서 불가피할때만 본문에 노출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번	이름 (가명)	사용 기간 (년)	사용 약물(시간순)	회복 공동체 참여 기간	구속 경험	단약 여부	면접 일자
1	희정	25	본드, 부탄가스, 러미날, 루바인, 날부핀, 대마, 졸피뎀, 필로폰	25년	있음	해당 (12년)	24.10.23. 24.11.14.
2	인희	9	케타민, 대마, 합성대마, 필로폰	1년	있음	해당 (1년)	24.10.30. 24.11.14. 24.12.09.
3	아정	9	티지, 필로폰, 대마, 자낙스, 펜터민, 쿠에토피	3년	있음	비해당	24.11.22. 24.12.05. 25.02.26.
4	정인	6	수면제(쿠에타핀, 달마돔), 프로포폴,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펜터민, 필로폰, GHB, LSD	1년	없음	비해당	24.12.09.
5	준희	4	자낙스, 스틸녹스, 대마, LSD, 캔디, 블랙페퍼, 필로폰	1년	없음	해당 (1년)	25.01.22. 25.02.26.

회복공동체 참여 기간, 구속 수감 경험 유무, 단약 여부는 최종 면접일 기준

### 3. 약물에의 이끌림과 몸의 경향성

#### 1) 젠더화 된 고통의 침습: “나도 모르게” 몰두한 재미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피해 경험은 여성들의 약물 사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Dawkins, 2001; Engstrom, 2002).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모두 약물 사용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 할 때, 그 경험이 어떠한 기억, 습관 등 몸의 경향성을 만들어 내어 약물로 이끌리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인희, 아정, 정인은 유년기 성폭력 및 아버지에게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왜 자신이 중독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경험은 이들의 약물 사용과

직결되어 해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피해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섭섭함과 외로움으로 의미화 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시작된 “방향”은 가족을 벗어나 게임, 도박, 절도, 캐주얼 섹스 등을 통해 일상의 재미를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인희는 초등학교 1학년때인 1998년, 교회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2학년때는 주거침입 강간을 당했다. 이 사실들은 아직도 부모님들이 알지 못한다. 13살때에는 엄마의 동거남에 의한 강간 피해도 경험했는데 당시 가해자는 신고하면 강간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며 엄마와 인희를 협박했다. 가해자가 기껏해야 3년 남짓의 실형을 살고 나와 보복할 것을 생각해보라며 신고를 말리는 경찰관의 말에 엄마는 고소를 취소했다. 인희는 당시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았던 엄마의 대응에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 사춘기때에는 그 마음을 드러냈다가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떠한 행동도 부모님이 용인 해야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이후 인희는 결석, 절도, 자퇴를 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게임과 앱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난 남성들을 통해 케타민,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

약물 사용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인희에게 초기 약물 사용은 캐주얼 섹스에 수반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25세 때인 2015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만난 한 남성이 정신이 맑아진다고 투약을 해주었고, 당뇨병 약인가 싶었던 그것은 이후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다. 인희는 알지 못하는 그 약물이나 주사기, 남성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격이 “회피” 중심이고 당장의 유희와 재미에 빠지기 바빴던 것을 그 이유로 말했고 이전의 절도, 자퇴, 게임 몰입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흥적 재미”인 캐주얼 섹스와 약물 사용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다는 인희의 이야기는 피해와 침묵 이후 자극 추구에 익숙해진 경향성을 만들어 낸 신체의 작용 능력(베넷, 2020)을 보여준다.

마약류 통계를 생산하는 법무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인희의 약물 사용 “동기”는 “호기심”, “유혹” 등의 항목으로 분류될지 모른다. 하지만 인희에게 게임, 낯선 약물 사용, 캐주얼 섹스와 같이 “당장”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는 것을 재미로 만든 것은 그 반대의 상황, 즉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눈치 보고 참으며 유예되고 지연된 시간들이었다. 국내의 한 연구는 위험추구 성향이 약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준홍·조정인, 2012). 이는 여성들에게 자극 추구 성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요한다. 인희에게 그것은 자신의 폭력 피해를 묵인하려는 가족들, 심지어 자신 때문에 동거남과 헤어지게 된 엄마를 살피 반응해야하는 딸 노릇 수행으로부터의 탈주였다.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시도가 “일탈”로 이어진 것은 아정 역시 마찬가지다. “숨기며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생애사적 관점이 보여주듯, 아정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그 분노는 “집 밖에서 판데로 터져” 나왔는데, 중학교때부터 시작한 술과 담배, 절도가 대표적이다.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불만을 표출하면 그것을 이유로 아빠의 폭력은 오빠나 남동생이 아닌 아정에게 집중됐다. 이때 엄마는 자신이 참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며 아정을 나무라고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런 마음의 “응어리”로 고등학교때부터 아정의 가출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25세때 약물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아빠로부터 조력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아정에게 생존의 자원은 이성애였다. 고등학교 3학년때 집을 나온 후 2살 연상의 “동네 오빠”와 연애를 시작했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며 그가 권한 대마초와 합성마약(TG)를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게 됐다. 그가 투약 혐의로 구속됐을 때에는 또 다른 남성과 생활하며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 대마를 피우고 도박을 했다. 여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묵인, 그것

에 대한 분노가 가족 밖 이성애 관계 구축이나 당장 “기분” 좋아지는 자극에 익숙한 몸의 경향성을 만들어낸 것은 인희와 마찬가지로.

## 2) 노동과 유흥 사이: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몸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폭력의 피해와 그 고통의 침습에 국한되지 않았다. 1976년생 희정은 중학교 2학년때의 두번째 가출에서 동네 또래들과 본드와 부탄가스를 마셨고 그것이 첫 약물 경험이다. 또래 문화를 통해 약물을 접했다는 것은 아정이나 인희와 다를 바 없지만, 희정의 잦은 가출은 단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놀다 이뤄진 것일 뿐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로봇같이 살아오다 다른 행복을 찾은 나”가 생애사적 관점일 정도로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청개구리”처럼 일탈을 해도 부모는 나무라지 않았다. 희정은 이후 이어진 가출과 “노는 문화” 속에서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들과 러미날, 루바인, 날부핀, 대마초 등을 투약했다. 그저 또래들의 “놀이”로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약물들이 주는 몽롱한 느낌이 유쾌하지도 않았다. 당시 스스로 약물 사용을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다.

그런 희정이 적극적으로 약물을 찾기 시작한 것은 성매매를 하면서부터다. 가출이 반복되던 와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룸싸롱에서 간헐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돈을 버는 입장에 놓이자 그 체서야 부모님이 25번의 이사, 수퍼 및 미용실 운영 등 20개의 직업을 가질 정도로 힘들게 일해왔음을 깨닫게 됐다. 그때부터 “밤생활”은 가계를 돕기 위한 주업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로봇” 같이 살았다. 이즈음 함께 “놀던 동네 오빠”로부터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희정에게 필로폰은 다음날 숙취 없이 혹은 밤 늦은 시간까지 즐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희정은 그 효과를 의도해 필로폰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날이면 그 짜증을 “핑계”로 필로폰을 찾곤 했었다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자신의 “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준 필로폰이 좋았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그 “강박”을 사소화하고 약물 중독은 자신의 책임일 뿐이라 했다. 희정의 이러한 해석 과정에는 중독을 자기통제 실패의 결과로 여기는 지배적 담론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Gomart, 2002; Moore, 2010; Moore & Fraser, 2006), 그녀의 “강박”이 “핑계” 이상으로 강력했다는 것은 단약 과정에서 드러난다.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시자 희정은 더 이상 자신이 애써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필로폰은 더 이상 끌리지 않았다. 자신이 투약으로 구속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면회를 오던 사랑하는 아빠를 십수년간 보면서도 이뤄지지 못했던 단약이었다. 희정은 가족 부양에 대한 “강박”을 떨치고 나서야 “습관적으로 익숙한 일”로 생각해온 “몸 팔고 웃음 파는” 성매매가 싫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은 성매매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는 몸의 경향성이었다.

희정에게 성노동이 감수 “습관”을 만들었다면, 현재까지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정인에게 “밤일”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우스 파티나 클럽에서의 유흥과 다를 바 없이 이야기됐다. 1995년생 정인은 1997년생 아정처럼 폭력적인 아버지와 어린 시절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아빠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반복하던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술을 먹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후 모텔에서 낯선 남자 3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정인의 엄마는 인희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지어 자신 몰래 합의를 해주었다. 이후 정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흡연, 섹스, 낙태 등의 “사고”를 치기 시작했고 암 투병을 하던 아빠가 사망한 25살 때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았다. 이 시기, 자신처럼 학교를 중퇴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의 소

개로 정신과와 피부과 병원에서 디에타민,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아 오남용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망 후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정인은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정인은 “밤일”을 하면서 다양한 약물들을 구입하느라 자신의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인 엄마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 썼다.

그녀는 병원을 통해 처방받아 오남용한 것과 아닌 약물들을 구분하고 후자를 “마약”으로 지칭했다. 첫 “마약”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다른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의 파티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음료에 타 마셨던 그 알약은 이후 알고보니 “엑스터시”(MDMA)였다. 2년여간 유흥업소 일을 한 이후에는 클럽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다 그의 지인들,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클럽을 가던 오빠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대여섯이 한 집에 모여 며칠씩 함께 투약을 했고 남자 친구가 구속되자 약물을 얻기 위해 다시 유흥업소에서 나가기도 했다. 거기서 만난 “상선”을 통해 텔레그램을 통한 약물 취득 방법을 배웠고, 그렇게 코로나 시기부터 2년여간 매일 같이 합성마약을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즉, “밤일”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약물을 얻고 사용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정인은 약물을 “외로움을 충족해주는 친구”라 말했는데, 그 외로움은 돈을 버느라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부모에 대한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됐다. 성폭력 피해 이후 처음으로 수면제를 대량 복용하고 응급실에 입원했고 그제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엄마를 보며 기분이 좋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엄마는 이를 거부했다. 정인이 학교를 중퇴하고 “노는” 친구들과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정인은 지금도 외로움을 달래려 약물을 사용하고 취한 채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마약”은 많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놀면서 사용한다. 가족으로

부터의 소외가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 것은 다른 연구참여자와 다를 바 없지만, 그녀에게 약물은 주로 부모의 경제력을 통해 직접 구매와 소비가 가능한 병원 혹은 또래의 유흥 문화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에서 섹스를 매개로 약물을 얻어야 했던 다른 이들과 차이가 있다.

#### 4. 약물의 배치

##### 1) 약물의 불확정성과 이성애 섹스

약물의 힘은 본질적이고 자명하기보다 그것을 둘러싼 배치에 따라 상이한 행위성을 드러냈다(Azbel, 2023). 정인은 “밤일”을 하는 동안 다이어트약(디에타민, “나비약”)도 늘 먹었다. 살을 빼기 위해서나 성 노동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취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식욕억제제 복용은 젠더화 된 외모 관리의 규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곤 하지만(여성가족부, 2024), 정인에게 그것은 병원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한 합성마약과 다를 바 없는 이완제였다. 정인은 집, 파티룸, 호텔, 룸싸롱 등 약물이 유통되는 성매매의 다양한 공간이 강남, 수원, 인천 등 지역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때 약물 사용이 주로 이뤄지는 “약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들려했다. 정인이 이야기한 성산업의 “약방”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인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했던 원룸, 이후 정인이 마련한 집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인은 코로나 기간 2년여간 합성마약에 중독된 이후 어떠한 약물과도 멀어지겠노라 결심하고 약물을 구할수 있었던 병원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강남을 떠나 이사를 했다. 아랫집에는 수면제에 중독된 친구가 정인과는 정반대, 핑크색의 커튼과 침구, 소리 없는 조명 등 잠을 불러일으키는 정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정인은 유흥업

소에서 일할 때 경험한 “약방”이나 클럽, 파티룸과 마찬가지로 조명과 스모그, 큰 소리의 음악을 24시간 켜두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GHB, 펜터민 등을 사람들과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정인에게 약물을 “외로움을 충족해주는 친구”로 만든 것은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과 함께 한 사람들, 음악과 조명, 스모그 등의 배치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노는 문화”를 즐기려던 정인과 달리 캐주얼 섹스에 몰두했던 인희 역시 정인이 사용했던 약물, 케타민과 합성 마약을 남성들로부터 받아 사용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 반면 필로폰은 소극적이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던 인희에게 “위험을 무릅쓰는” 대담한 기분을 가져다주었다. “몸이 가벼워지고”, “내가 아닌게” 되는 느낌과 함께 평소와는 달리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섹스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좋았다. 약에 취한 상황에서는 여러 명과 섹스를 하는 것이나 자신의 성향에 맞추길 요구하는 남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즉, 약물과 함께 한 섹스는 단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기 통제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쾌락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Dennis et al., 2023; Clay, 2024). 인희가 대마, 펜타닐 등 환각성 약물을 사용하는 이들의 재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케타민으로 투약을 시작했으면 중독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다. 즉, 인희의 섹스의 즐거움은 피부나 신체의 자극, 약물이 주는 신경학적 흥분, 어린 시절 성적 피해의 트라우마나 일상의 무료함으로부터의 해방감 그 어느 것 하나로 환원되지 않았다.

섹스에 대한 감각 차이 역시 필로폰을 둘러싼 배치에 따라 상이했다. 인희와 달리 아정의 첫 필로폰 사용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아정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었던 당시, 자신의 상태를 안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 자신이 원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를 반복했다. 그가 마약 사범인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났지만 돈이 급하니 일단 만

나본 후 판단하자는 마음으로 그를 만났다가 투약을 하게 되었다. 그가 꺼내 든 주사기를 보고 30분을 실랑이하다 이미 자신에게 돈이 입금된 것을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다. 아정은 이 순간부터 일주일을 세상을 살며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 약물에 취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기분이 들었던 것은 인희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렇게 2박 3일동안 모텔에서 투약, 섹스, 정신 잃기를 반복한 후 집으로 돌아와 점점 취기에서 깨어나면서 “현타”가 왔다. 옷이 다 벗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공포가 컸다. 주사기와 섹스는 카드 빚, 현금, 마약 전과자와 배치되면서 역겨움으로 다가왔다.

반면 희정에게 첫 필로폰은 아정처럼 두렵거나 불쾌하지도, 인희처럼 섹스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즐거움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평소 또래 하위 문화에서 “노는 오빠”들을 통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기에 알지 못하는 그 약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필로폰을 건넌 그는 성관계를 원하는 눈치였으며, 희정은 그 약물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좋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가 원하는 섹스를 했다. 즉, 섹스와 필로폰의 교환은 아정의 사례처럼 그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희정이 유흥업소에서 하고 있던 “몸을 파는” 것과는 달랐다.

즉, 이들이 필로폰을 처음 사용하면서 가져던 느낌의 차이는 섹스에 대한 기대, 돈과 교환된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과 해석, 과거의 몸 경험 등 약물이 여성의 몸 궤적과 함께 배치된 방식에 따라 달랐다. 이것은 인간과 약물, 이성과 몸이 이미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으며 약물의 힘을 약리적 효과나 본질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Azbel, 2023; Dennis, 2017; Dennis & Farrugia, 2017).

## 2) 의료용 약물과 의료 지식

약물을 둘러싼 배치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섹스, 유흥산업,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공생하고 있는 피부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 병원이었다.

준희는 여성폭력의 피해나 성매매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사례다. 생애 사적 관점이 “애매하게 살기 싫은 나”일 정도로 무엇이든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크고, 반대로 성공할 승산이 없는 일은 포기한다. 공부, 음악, 친구들과 사이에서의 인기 등에서 “완벽”했던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엄마의 교육열과 생활 통제에 지쳐 가출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엄마는 초등학생이던 준희를 타 지역의 시골 학교로 전학시켰다.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준희는 친구들과 격차가 커져버린 자신의 학업 능력을 깨닫고 자퇴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을 가는 만큼이나 빨리 돈을 벌어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을 다니며 왓싱 자격증을 따다. 엄마를 포함한 남들 앞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 늘 긴장상태였다던 그 즈음, 자신도 모르게 집에 있던 배탈약 등 상비약들을 전부 먹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를 계기로 정신과에 가서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준희의 “약을 털어 먹는 버릇”은 이때부터 심화됐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까지 한번에 먹기 시작했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이는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 좋기도 했다. 약물에 취해 다음날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죄책감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자낙스,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검색하고 처방을 쉽게 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녔다.

준희가 2021년부터 2년간 수면제를 구한 병원은 서울 천호동, 수원 인계동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들에 소재했다. 이곳 병원들이 약물을 쉽게 처방해준다는 것을 알고 직장도 옮겨 다녔다. 정인의 경험처럼 유흥업

소 주변에 여성들의 피부 및 몸매 관리나 정신적 어려움을 다루는 병원들이 즐비했고 프로포폴, 디에타민 등 긴장 이완을 위한 약물 처방이 방만하게 하고 이뤄지고 있었다. 유흥산업과 의료산업의 공간적 연결은 30여년 전 성매매 집결지 인근 약국에서 진해거담제인 러미널(“땅콩”)을 구입해 사용했던 희정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마약류 사용이 빈곤지역에 집중된 외국과 달리 유흥가가 그 중심인 특징이 지적되고 있으며(공정배 외, 2023:52), 정인이 사용했던 케타민과 프로포폴 역시 한국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문제화되고 있다(대검찰청, 2024). 하지만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유흥업으로 분류된 비율은 1.6%에 그치고(대검찰청, 2024:72), 준희처럼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 역시 이 지역의 병원들을 이용한다. 유흥업소 종사자 개인이 아니라 여성들의 약물 사용과 외모 관리를 촉진하고 긴장을 야기하는 성산업의 남성중심성, 이것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하는 의료 산업, 여하한 고통을 개인화하며 약물 처방을 해법으로 권하는 정신의학적 담론의 제도화 과정을 문제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데이비스, 2024).

하지만 의료 산업은 정작 여성들의 몸 경험을 반영한 지식 생산이나 치료 기술의 갱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심지어 중독 치료를 표방하며 확장되고 있었다. 준희는 필로폰 사용의 지속과 함께 점점 이상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엄마는 준희를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켰다. 준희는 이곳을 통해 약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곳에서는 약물 사용자들이 약물 이야기를 반복하는 “말뽕”이 난무했을 뿐이었다. 약물을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갈망약을 먹는 이들을 보면서 준희는 “이건 평생 끊을 수 없는 거구나” 싶었다. 퇴원 후 남자친구와 다시 투약한 뒤에는 자신이 병원에서 본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자괴감에 빠졌고 가족의 관심을 받으려던 약물 오남용은 그때부터 숨겨야하는 것이 됐다.

준희는 다양한 약물 사용과 이때 수반된 강렬한 섹스 이후 간 섬유증,

비대증, 피부와 팔의 상처, 갑성선 수치의 문제와 질 하혈 등을 반복해 경험했지만 중독 치료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말할 기회도 없었고 스스로 말하지도 못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약물 사용 여성의 신체 건강에 대한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인희에게도 약물 중독 치료 병원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병원장은 중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할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지만 이곳의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나 약물과 동반됐던 섹스가 가져온 쾌락과 고통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었다. 의료 기관의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방만한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도입되고 급여 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준희와 정인은 이후로도 의료용 약물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오남용했다.

구치소 및 교도소의 약제실 역시 약물 사용에 익숙해진 여성의 몸 궤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2022년 첫 구속으로 들어간 구치소 “뽕방”에서의 6개월은 오히려 아정이 또 다른 약물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곳 약제실에서는 항갈망제 등 마약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해주지는 않았지만 약물 사용자들의 분노 조절이나 우울 호소 등 “급발진” 문제에 대응해 불안 및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한 쿠에타핀, 졸피뎀, 디아제팜, 루나팜, 자나팜 등을 처방해주었다. 필로폰을 통해 각성 상태를 즐겨왔던 아정은 그와 반대로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이 약물들의 재미를 알게되었고 이를 통해 답답한 구치소 생활을 버렸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투약 행위의 “습관”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완의 몸 느낌에 익숙해지면서 출소 이후 필로폰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케타민을 포함한 의료용 약물을 대체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5명의 연구참여자들 모두 필로폰과 같은 “강성 마약”보다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료용 약물의 중독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아정은 그 대표적인 예로 ADHD나 조현병에 처방되는 쿠에타핀을 꼽았다. 아정에게 처음 필로폰을 건넸던 남성은 청소년기 ADHD

진단을 받은 후 이 약물을 축적해 오남용했고 교도소 수감을 통해 대용량 처방과 사용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이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쿠에타핀 등 더 많은 약물을 규제 대상인 “마약류”로 지정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 해법일까.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 필로폰에 익숙했던 아정에게 이완제가 즐거움이 되게 만든 것은 무료한 구치소의 일상이었다. 필로폰 사용시 감각되는 빠른 시간의 속도와는 정반대였고 그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흘러보내는 것이 필요했다. 아정은 연구자와의 면접 과정에서 이뤄진 수다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고, 애견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당장 여기에만 집중하며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시간성을 상상했다. 지금 아정은 과거 입건된 형사 사건들로 인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상태다. 그곳을 통해 또 다시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약리적 치료가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준희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강박과 조울증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무료함을 떨치게 해주었던 필로폰의 취기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신기한” 몸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역시 그 처방 약물의 효과라 단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약물도 “한번에 털어 먹는” 대상이 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준희에게 정해진 시간의 꾸준한 복용, 그 규칙적 일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회복 공동체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한 간식, 숙제, 수다와 청소 등의 시간이었다.

## 5. 약물의 이탈적 작용능력과 새로운 몸 궤적 출현

### 1) 약물 경제의 남성중심성: “꼬마(로) 잡히기”

약물은 집의 상비약, 응급실과 엄마, 파티의 조명, 카드 빛, 구치소의 “뽕방” 등 다양한 물질들뿐만 아니라 섹스 파트너의 신체와 배치되기도 했

고 이때 매개된 젠더화된 섹슈얼리티 실천과 담론은 여성의 신체를 투과하고 변형시키고 있었다.

필로폰이 가져오는 취기를 적극적 섹스의 즐거움으로 경험했던 인희는 점차 섹스보다 필로폰에 몰두하게 됐지만, 섹스 없이 필로폰을 구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SNS를 통한 취득은 경찰의 위장수사로 검거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인희는 안전하게 약물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배운 은어를 기반으로 그 상대가 약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식별한 뒤 약물-섹스의 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다 만난 한 남성은 인희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인희가 도망을 치려하면 경찰에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거나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인희는 그 상황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제공해 주는 약물을 포기하기도 어려웠다. 약물을 구하기 위해 또 다시 낯선 남자들을 만나고 탐색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싫었다. 그렇게 인희에게 자유로운 섹스와 자신감을 가져오던 필로폰은 점차 인희의 몸을 약물 유통 권한을 가진 남성의 통제 대상,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섹스를 감수하도록 만들었다. 이때부터 인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과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팔목에 남아있는 한 뼨 길이의 칼자국 두 줄은 남들에게 들킬까 부끄러운 흔적이다. 결국 가족들에게 중독 사실을 알리고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는 종료됐다.

인희는 “호기심”으로 약물을 먼저 찾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며, 대다수 여성들은 약물 사용과 취득, 유통에 대한 정보를 가진 남성들을 통해 약물 사용을 권유받고 서서히 중독되면서 이들에게 의존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의 약물 사용이 파트너 등 주변 남성에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지만(Grella & Joshi, 1999; Kaufman, 1994), 이러한 연구들이 약물을 매개로 여성의 몸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상황을 보고해 온 것은 아니다. 마약류 사용자들의 특성을 통계분석한 국내 한 연구는 마약류 사용을 자기 통제를 결여한 충동

의 산물로 바라보는 지배적 담론과 달리 남성들은 계획적이고 자기 통제  
의 범위 내에서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여성들과 대비되는 특성임  
을 지적하고 있다(김준홍·조정인, 2012). 마찬가지로 약물, 이를 둘러싼 배  
치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그 효과를 상이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약물 유통의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성에 대  
한 성적 지배와 통제를 용인하는 남성중심적인 이성에 질서다.

준희와 아정 역시 자신의 몸이 약물을 둘러싼 섹슈얼리티 질서와 연결  
됐었다는 것을 간파하며 몸에 대한 회고록(앨리모, 2018)을 만들었다.  
필로폰을 찾았다는 준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 온 남성은 공짜로  
그리고 직접 집 앞에 찾아와 주사를 놔 주었고 이후로도 그의 제안은 지속  
됐다. 준희는 그가 필로폰 제공의 대가로 섹스를 요구하려 했던 것이라 처  
음부터 직감했다. 평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던 그는 이 거래가 시작되자  
말을 놓으며 점차 자신을 “쉽게” 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전  
화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왔고 취기의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던 준희는 그토록 “역겹게” 여긴 그와의 섹스를 통  
해 약물을 또 다시 얻었다. 약물 제공을 미끼로 상대를 중독시킨 후 그것  
을 갈구하는 상대를 “노예”의 위치로 만드는 것을 약물 사용자들은 상대를  
아무 것도 모른채 따르는 꼬마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에서 “꼬마 잡는  
다”고 표현한다. 준희는 여성들이 꼬마 잡히는 상황에는 늘 섹스가 수반된  
다고 주장했다. 아정 역시 돈이 궁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찾아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은 약물을 투약시킨 후 섹스를 한 남성이 결국 자신을 약물  
을 갈구하는 “을”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했다. 이후 만난 남자친구에게 약물  
을 건네주던 “상선” 역시 필로폰을 주면서 아정에게 섹스를 요구했다. 남  
자친구가 투약은 자신과만 함께 하자고 말했던 이유였다.

필로폰, MDMA, LSD, 대마초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강성 약  
물”의 불법성은 남성의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  
었다. 인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만난 남성들은 이전에 만났던 이

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약물을 제공하고 섹스를 요구했다. 경찰에 신고해 실형이 집행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협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과 약물의 관계는 약물 이용 성폭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김새롬 외, 2024), 약물 취득을 위해 원치 않는 섹스를 용인하기도 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성폭력이라는 범주로 포섭되지 않았다. 아정, 준희, 인희는 약물과 분리불가능한 남성과의 섹스가 불쾌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이 원해서 시작된 관계이거나, 그들의 강압적 요구는 무시할 정도로 사소했거나, 투약으로 인한 “블랙아웃”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흥분되고 좋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기에 그것을 성폭력이라 생각지 않았다. 그녀들이 약물과 함께 느낀 섹스의 쾌락은 상대방과의 종속적 관계에 대한 불쾌와 공존했다. 이러한 현실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약물 경험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2) 긴장 속의 쾌락과 몸의 이탈: 성적 낙인과 거부

위와 같이 여성들에게 약물이 주는 감각은 과거의 몸 경험, 약물을 둘러싼 사람과 사물의 배치, 취기 이후 도래할 상황에 대한 해석 속에서 쾌락, 고통, 역겨움, 자괴감 등의 복합적 감정으로 경험된다. 페이 데니스는 이러한 상황을 ‘긴장 속의 쾌락’이라고 명명한다(Dennis, 2019). 그런데 여성들에게 긴장을 야기한 성적 지배나 굴욕감은 약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즉 약물의 기존 횡단 경로를 이탈하는 힘을 가져왔다.

희정은 첫 구속으로 수감됐던 “여자 뽕방”을 “인간 지옥”이라 말한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처음 권했던 남성과의 관계를 사랑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의 여성들은 희정이 그저 마약 사용 남성의 “노리개감”이었고, 희정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뽕 사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희정에게 필로폰을 건넸던 그는 투약 혐의로 구속된 뒤 희정을 포함한 공동 투약자들을 신고하면서 석방됐고 그로 인해 희정이 체포됐다. 하지만

희정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약물을 얻기 위해 관계를 불문하고 섹스를 하는, “상도덕”은 커녕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희정은 그곳에서 “염산보지”라는 어휘가 공유될 정도로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염산류 약물 사용 여성이 성적 방종과 문란함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했다. 한편으로는 자신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게 비취질 수 있겠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때부터 약물을 동반한 섹스는 치욕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출소 직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활 공동체를 찾게 된 이이다. 이후 단약에 실패하고 네 번의 구속이 반복되었지만 단약의 기간은 점차 길어졌다. 약물의 판매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어 혼자 모텔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물 사용의 방법도 변화했다.

약물과 수반된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약물로부터 이탈하려는 새로운 몸 껍적을 가져온 것은 인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물을 위해 섹스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섹스를 위해 약물을 용인할 정도였던 인희는 약물을 공급해 준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협박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자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약물에 이끌리는 자신이 “역겹”게 느껴졌다. 인희는 희정처럼 여성의 성적 실천에 대해 “상도덕”과 같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해의 흔적은 그녀에게 약물-섹스가 죽음을 무릅쓸 정도의 일인지 의구심을 가져왔고, 결국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중독 치료병원과 회복 공동체를 찾게 됐다. 그런데 인희는 퇴원 직후,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엄마의 동거남으로부터 갑자기 섹스를 요구 받았다. 입원 당시 병원장이 엄마와 그에게 한 말, “마약 중독 여자들은 약을 하려고 몸도 판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에게 그런 접근을 했던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약물과 동반된 섹스로 성병 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의사가 보인 때도 역시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젠더 불평등을 느끼게 만들었다. 의사는 임질이라 진단하며 인희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지만 당시 섹스 파트너인 남성은 모텔의 비위생 상태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의 몸이 남성과 달리 평가되는 현실을 절감했다.

이처럼 약물 사용 여성들에 대한 성적 낙인과 통제가 강고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몸을 또 다른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형사사법과 의료의 연결망에 자신을 배치시키는 것이었다. 아정은 자신을 “꼬마”로 만드는 남성을 “이겨 먹을 수” 있는 응징 수단으로 자수를 택했다. 이를 통해 아정은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 “뽕 방” 수감을 경험해야 했다. 아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자수 대부분이 이러한 이성애 섹슈얼리티에 대한 분노로부터 촉발된다고 평가했다. 물론 그 분노가 곧장 단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아정은 약물에 취해 체포의 두려움, “쭈라”가 왔을 때에는 CCTV나 전기 콘센트, 조명을 켜다 감전되기도 했다. 그럴수록 친구나 가족들은 통제되지 않는 약물 사용자인 아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립되면서 아정은 “진짜 죽을 것 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정에게 죽음은 신체의 소멸은 물론, 그 신체가 상호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망 속에 더 이상 놓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의미했다(해러웨이, 2021). 그 두려움은 단약의 의지를 불러내고 있었다.

## 6. 결론

오늘날 한국에서 약물은 이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의 방종과 자기 통제 결핍, 혹은 인간 신체를 지배하는 약물의 약리적 효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물질, 이성/신체의 구획과 전자를 통해 후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근대적 관념은 강고하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할 때 인간이 느끼는 쾌락과 불쾌는 피부와 냄새, 취기 몸에 축적되어 온 느낌, 마음, 감정, 여기에 관여하는 문화적 해석과 담론 등이 ‘이미’ 서로 함께 작동한 결과로서 신경전달물질로서 약물 그 자체의 효과로 환원할 수 없다. 이때 젠더는

여성을 약물로 이끈 몸의 경향성, 약물과 여성의 몸을 둘러싼 배치 속에 작동했다.

여성 폭력의 피해, 반복된 성/노동으로 인한 고통의 침습은 외로움과 무료함을 위무할 이성에 파트너십과 즉각적 자극 추구, 긴장과 각성 상태에 “습관적”이게 익숙해지는 여성의 몸의 경향성을 만들었다. 사회적 지지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자원이 부재했던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여성들에게 이성애는 정서적 안정과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이 관계를 통해 만난 약물은 여성들에게 긴장 이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적 쾌락의 추구, 고된 성노동과 외로움에 대한 위무 등 젠더화 된 존재로서 살아온 자신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약물 사용 여성에 대한 도덕적 평가 대신 여성들에게 약물 사용을 쾌락으로 경험되게 만드는 몸의 경향성, 그 형성 과정에 작동하는 폭력과 성산업, 빈곤과 고립 등의 현실 자체에 대한 개입이 요청되는 이유다(Chang, 2023; Eleonorasdotter, 2024; Chang, 2019).

약물의 사용 방식, 함께 사용한 사람들, 공간과 음악 등 약물을 둘러싼 배치에 따라 동일한 약물도 여성들에게 달리 경험됐다. 그 중 유흥산업과 의료산업은 여하한 약물이 여성들의 몸에 가닿기 용이한 조건을 함께 창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 지식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몸 경험과 신체화된 증상을 독해하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한 성적 낙인과 소외를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약물과 여성의 몸을 매개하는 이성애 섹스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성애는 여성들에게 안전하게 약물을 취득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했지만, 약물 경제의 남성중심성, 약물과 여성의 몸을 교환하는 성적 거래 관계의 불평등은 원치 않는 약물 사용과 그로 인한 중독, 약물 제공을 빌미로 한 강압적 섹스와 폭력 피해, 성적 낙인과 굴욕감을 가져왔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형사절차 혹은 남성중심적인 가족 등 기존의 통제 관계에 재배치시키는 것을 감행하면서까지 단약을 시도하는 새로운 몸 궤적을 출현시켰다. 즉, 횡단-신체성과 몸 궤적의 변화

에 집중할 때 여성의 약물 사용은 현행 정책 접근처럼 의학적 치료나 규제, 처벌 대상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성적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질서와 규범의 문제를 소환한다.

자신의 몸이 약물을 둘러싼 의학과 형사처벌, 유흥의 세계, 섹슈얼리티 질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몸의 회고록’은(앨리모, 2010) 인간 신체를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과 절단하고 개인 책임을 묻는 지배적 지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이 단힌 몸의 자족적 실체가 아니라 물질과 흐름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듣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물질과 함께 변형되는 몸이라는 장소와 그 궤적 변화에 집중했기에 여성들이 사용한 구체적 약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 유통되어 여성의 몸에 이르렀는지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을 설명하지 못했다. 약물이 여성의 신체와 얽히는 시공간성과 경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더 많은 몸의 회고록이 작성되길 바란다. 약물 사용자들의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감각과 경험을 삭제한 지식은 그들을 다시 소외시키며 발화를 제약하고 처벌과 의료를 넘어선 개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Campbell & Herzberg, 2017; Walker, 2021).

## | 참고문헌 |

### (1) 국내문헌

- 공정배 · 김정인 · 유현우 · 장광호, 2023. “마약 범죄에 대한 공간적 영향요인 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3(3): 31-62.
- 김새롬 외, 2024.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여성가족부.
- 김정연, 2024.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9(2): 281-306.
- 김준홍 · 조정인, 2012. “성별집단별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위험 집단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재전략의 모색.” 『대한의사협회』 55(1): 84-96.
- 김지선 외, 2014. 『2013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24. 『마약류범죄백서』.
- 데이비스, 제임스, 2024. 『정신병을 팝니다』. 이승연 역. 서울: 사월의책.
- 베넷, 제인, 2020.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역. 서울: 현실문화.
- 앨러이모, 스테이시,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 · 김종갑 역. 서울: 그린비.
- 이재임, 2025. “기지촌정화운동에서의 마약 및 습관성약품 통제(1971-1976년)와 안전메커니즘의 구축.” 『사회와 역사』 145: 307-353.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전영실 · 김지영, 2017.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와 지원 방안 모색』. 「2023년 상반기 여성인권포럼」 자료집(2023.5.10.).
- 해러웨이, 도나, 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서울: 마농지.

### (2) 국외문헌

- Anderson, B. & Wylie, J. 2009. “On geography and materi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41: 318-335.
- Azbel, L. 2023. “Narcofeminist ‘chemsex’: Rethinking sexualised drug use in a shifting queer landscape marked by public health emergency.” *The Sociological Review* 71(4): 881-901.

- Britton, D. 2011. *The Gender of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Buer, L. M., Leukefeld, C. G., & Havens, J. R. 2016. "I'm Stuck': Women's Navigations of Social Networks and Prescription Drug Misuse in Central Appalachia." *North American Dialogue* 19(2): 70-84.
- Campbell, N. 2002. *Using Women: Gender, Drug Policy, and Social Justice*. London: Routledge.
- Campbell, N. & Ettore, E. 2011. *Gendering Addiction: The Politics of Drug Treatment in a Neurochemical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ampbell, N. & Herzberg, D. 2017. "Gender and Critical Drug Studies: An Introduction and an Invitation," *Contemporary Drug Problems* 44(4): 251-264.
- Castillo, T. 2019. "Women Who Use Drugs: Challenges Demand Self-Led Harm Reduction." *Filter Magazine*, <https://filtermag.org> [검색일: 2025.8.12.]
- Chang, J. 2019. "Whose Personal Is More Political: Women Who Use Drugs and the Feminist Movement." *International AIDS Society Blog*. <https://www.iasociety.org> [검색일: 2025.8.12.]
- Chang, J. 2023. "Narcofeminism: A Feminist Auto-Ethnography on Drugs." *The Sociological Review* 71(4): 760-779.
- Clay, S. 2024. "Chemsex as wild self-care." *Sexualities* 28(3): 1330-1346.
- Coppel, A., & Perrin, S. 2024. "Women, Gender and Drugs: Between Research and Action." *Harm Reduction Journal* 21(1): 200.
- Covington, S. S. 2007. *Women and Addiction: A Gender-responsive Approach, Manual*. Hazelden Publishing.
- Dawkins, N. U. 2001. *Responses to partner abuse: Modeling the paths to substance abuse, suicide attempts, and retaliative partner violence*. Emory University.
- Dennis, F. 2019. "Making problems: The inventive potential of the arts for alcohol and other drug research." *Contemporary Drug Problems* 46(2): 127 - 138.
- \_\_\_\_\_. 2017. "Conceiving of Addicted Pleasures: A 'Modern' Paradox."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49: 150-159.
- Dennis, F., & Farrugia, A. 2017. "Materialising Drugged Pl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49: 1-172.
- Dennis, F., Pienaar, K., & Rosengarten, M. 2023. "Narcofeminism and its Multiples: From Activism to Everyday Minoritarian Worldbuilding." *The Sociological*

- Review*71(4): 723-740.
- Dilkes-Frayne, E., & Duff, C. 2017. "Tendencies and Trajectories: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in an Event of Drug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5(5): 951-967.
- Eleonorasdottir, E. 2024. *Women's Drug Use in Everyday Life*. Palgrave macmilan.
- Ettore, E. 2007. *Revisoning Women and Drug Use*, Palgrave Macmillan.
- Engstrom, M. V. 2002. *Childhood Sexual Abuse and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Methadone Treatment: Mediating and Causal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Factors*, Columbia University.
- Gelstrophe, L. 2010. "Women, crime and control."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10(4):375-386.
- Gomart, E. 2002. "Towards Generous Constraint: Freedom and Coercion in a French Addiction Treatment."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4(5): 517-549.
- Grella, C. E., & Joshi, V. 1999. "Gender Differences in Drug Treatment Careers among Clients in the National Drug Abuse Treatment Outcome Study."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5(3): 385-406.
- Herzberg, D. 2009. *Happy Pills in America: From Miltown to Prozac*.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aufman, E. 1996. "Diagnosis and treatment of drug and alcohol abuse in wome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74(1): 21-27.
- Maher, L. 1997. *Sexed Work: Gender, Race and Resistance in a Brooklyn Drug Mark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ssumi, B. 2014. *What Animals Teach Us About Politics*.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Of Microperception and Micropolitics: An Interview with Brian Massumi." *Inflexions: A Journal for Research-Creation* 3: 1-20.
- McCormack, D. 2010. "Thinking in transition: the affirmative refrain of experience/experiment." Anderson, B & Harrison, P(eds.) *Taking-place: Non-representational Theories and Geography*. Farnham: Ashgate.
- Measham, F. 2002. "'Doing Gender'—'Doing Drugs': Conceptualizing the Gendering of Drugs Cultures." *Contemporary Drug Problems* 29(2): 335-373.
- Miller, J. 2014. "Ch,2 Doing crime as doing gender? Masculinities, femininities, and

- crime". *Gender, Sex, and Cr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ore, D. 2010. "Beyond Disorder, Danger, Incompetence and Ignorance: Rethinking the Youthful Subject of Alcohol and Other Drug Policy." *Contemporary Drug Problems* 37(3): 475-498.
- Moore, D., & Fraser, S. 2006. "Putting at Risk What We know: Reflecting on the Drug-Using Subject in Harm Reductio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62(12): 3035-3047.
- Nagel I, H. & Johnson B. L. 1994. "The role of gender in a structured sentencing system: Equal treatment, policy choices, and the sentencing of female offenders under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5: 181 - 221.
- Paltrow, L. & Flavin, J. 2013. "Arrests of and forced interventions on pregnant women in the United States, 1973 - 2005: Implications for women's legal status and public health."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38(2): 299 - 343.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24. World Drug Report 2024: Contemporary Issues.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WD R\\_2024/WDR24\\_Contemporary\\_issues.pdf](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WD R_2024/WDR24_Contemporary_issues.pdf) [검색일: 2025.8.12.]
- Walker, I. 2021. *Pleasure and the new normal of recreational cannabis in the United States*. In D. Corva & J. Meisel(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disciplinary cannabis research*. Abingdon: Routledge
- Walker, I., & Netherland, J. 2019. "Developing a Transformative Drug Policy Research Agenda in the United States." *Contemporary Drug Problems* 46(1): 3-21.

Abstract

Trans-Corporeality and Women's Bodily Trajectories  
– Life histories of Women on Early Adulthood  
Experiences of Drug Use

Choo, Ji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ceptualizes women's bodies as sites of trans-corporeality and analyzes the life histories of women with experiences of drug use, exploring how their bodies and bodily trajectories are formed through these entangle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experiences of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burdens of repeated sexual and labor exploitation shaped bodily trajectories marked by heterosexual partnerships sought to ease loneliness and boredom, the pursuit of immediate stimulation, and habituation to tension and arousal. As these bodies were situated within nightlife and medical industries—through casual sex, parties, pharmaceuticals, and emergency rooms—drugs generated new forms of pleasure, enabling more active sexual encounters and reconfiguring women's positions, for instance from daughters into subjects of attention. At the same time, drugs traversing male-centered drug economies and sexual discourses also produced addiction, coercive sex, victimization, and sexual shame. Through the repetition of these tensions, transformations in bodily trajectories emerged that sought to exit exploitative heterosexual relations.

**Key words:** drugs, body, trajectory, trans-corporeality, narco-feminism

-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7일

